양국 원자력계의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

방 국 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양국 간 원자력의 안전성 및 경제성의 증진 방안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양국 원자력계의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필립 띠에보 주한 프랑스 대사님, 김대기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님, 필립 가르데레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 회장님, 베르나르 졸리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 사무총장님, 그리고 10월 13일부터 일본 아오모리에서 개최되는 PNC 대회에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강창순 PNC 회장님,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소개 드리지 못하지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불 양국 내빈 여러분!

오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5회 한□불 원자력산업 연차세미나에 한국 원자력 산업계를 대표해서 개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1989년 5월 18일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 및 프랑스원자력학회와 협력각서를 체결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불 원자력산업회의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초창기 몇 차례 실시하다 중단되었던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에 관하여 2003년 9월 프랑스를 방문 협의 결과 매년 정기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되어 2004년부터 본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으로 제5회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단없이 계속 개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간 한·불 양국 원자력 산업계의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던 본 세미나가 앞으로도 양국 간 원자력산업계의 친분과 이해 증진을 통해 원자력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작년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던 제4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에 참가한 한국대표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환대하여 주신 프랑스 원자력 산업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불 양국 내빈 여러분 !

여러분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원자력산업계는 원자력이 인류 복지생활의 향상과 경제 성장의 지속을 위하여 필수적인 에너지라는 인식하에 원자력 에너지가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연구 개발과 원자력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괄목할 만한 실적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한국의 원자력산업은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3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원전 총 20기, 시설 용량 1,772만kW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1978년 대비 시설 용량 기준으로 약 30배가 성장한 것으로 원자력은 국내 전력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08년부터 2030년까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화석 에너지 발전 비중을 83%에서 61%로 축소하고, 이를 대신하여 원자력발전소 10기를 추가 건설하여 약 60%의 발전 전력을 담당하는 등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원자력산업은 발전 분야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의료용 동위원소의 대량 생산,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 및 섬유 소재 개발 등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비발전 분야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앞으로 원자력 기술 이용 산업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꿈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핵융합 사업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7개국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원자력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국제 협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자력산업의 발전과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력은

일부 국민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그간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와 함께 환경 단체 등의 반핵 활동으로 원전 관련 사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프랑스의 원자력 산업계는 그 동안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 설득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대중 인식 증진을 위한 프랑스 원자력 산업계의 경험은 지난번 산업 시찰에서 보여주었듯이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귀국의 유럽형 가압경수로(EPR)의 개발과 지속적인 원전 기술 고도화 계획 추진으로 세계 원자력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한 · 불 양국의 원자력계 관계자 여러분 !

20세기 후반에 화석 대체 에너지로서의 역할로 지구 자원 보존에 크게 기여한 원자력은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지구 환경 보전과 안전성 확보라는 전 세계적 요망에 부응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의 위치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명제를 안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21세기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미래 원자력 시스템은 환경 친화성, 안전성, 에너지 효율성, 경제성 및 핵비확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화 시대의 원자력 핵심국이 될 한 · 불 양국의 원자력계는 향후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긴밀한 유대 강화를 통하여 더욱 협력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5회 한 · 불 원자력산업 연차 세미나를 계기로 삼아 양국 간 원자력의 안전성 및 경제성의 증진 방안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양국 원자력계의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비록 짧은 체류 기간이지만 모처럼 내한하신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의 원자력계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시고 또 한국의 가을 정경을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의 준비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 관계자, 그리고 한국 원자력산업계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